

## 성별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학령전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도형과 책을 이용한 언어검사를 통해 평가된 언어능력의 비교

신 경 해 황 상 민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학령전 아동의 언어이해나 언어표현 능력은 철증하는 아동의 인지능력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언어발달은 아동의 초기 사회적 환경의 경험이나 인지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표현 능력이나 이해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경험의 정도와 질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초기 아동기의 언어능력을 대인관계나 초기 학습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의 하나로 가정하고, 이 기술이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성별간의 언어발달 수준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세할 것이다. 둘째, 중상류층 아동과 하류층 아동간의 언어발달 수준에서 중상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에 비해 우세할 것이다. 셋째, 중상류층에 비해 하류층에서 남녀 성별 간에 언어발달 수준의 차이가 뚫 것이다. 연구대상은, 5~6세 아동 각각 100명씩이었다. 표집아동은 서울시내 강남·강북 지역의 10개 유치원과 9개 어린이집에서 남녀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두 변인을 기준으로 무선 표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언어능력 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중상류층 아동은 하류층 집단의 아동보다 연령군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선천적 요인인 성별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간다. 성별요인에 따른 언어발달에 관한 초기 연구자들인 Davis와 Shire, Young과 Fisher(박인권, 1992) 등은 생후 초기부터 조음능력 그리고 독서능력 등 대부분의 언어능력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세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Young과 Fisher는 상류계층에서 보다 하류계층에서 그 차이가 더욱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후 Dale은 생후 초기부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언어능력이 우수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청소년 후기인 고등학교 이후에 소녀가 소년보다 어휘

력,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 등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고, Maccooby와 Jacklin(이연섭, 강문화, 1990)는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연구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진정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아기부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언어 습득이 빠르며 고수준의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반적인 언어능력이 우세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내의 부모의 양육태도,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이 있다. 아동기 초기의 언어발달은 이들 요인 중 부모나 가족과의 상호접촉 형태나 행동유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결과 하류층 아동들이 중상류층에 비해 선천적으로 언어능력이 열등하거나 언어환경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언어발달 수준에 있어 열세에 있는 것이 이 방면 연구에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이다.

Bernstein는 출신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는 유아기때부터 언어적 약호(codes) 내지는 언어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개발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들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는 개인이 선택하고 조합할 문장의 요소가 제한되어 있는 제한된 언어(restricted-code)를 사용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보다 융통성이 있고 풍부하며 표현이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교한 언어를(elaborated--code) 사용한다고 밝혔다(Robinson, 1992).

Bernstein이 말하는 제한된 언어의 특징은 ① 상투적이고 제한적이며 특수성과 정확성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② 문장의 형태는 짧고 단순하며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고 종속절의 사용이 적어 쉽게 이해되고, ③ 대화에 개인의 감정이 나타나기

보다는 공적인 대화가 많고,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정교한 언어란 ① 개인 가정이 표현이 분명하고 개별화 되어 있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인물, 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수성이 있으며 ② 표현이 다양하고 사고의 폭이 넓어 인지적인 내용과 정의적인 내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Bernstein, 1961).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아이 부모의 직업과 학력으로 구분된 각 집단들에서 관찰되는 아이와 부모의 행동형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의 예로 하류층 아동과 중상류층 아동의 언어를 분석하여 Bernstein의 주장과 같이 그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an Tough, Babara Tizard, Martin Hughes (Kittins, 1992) 등은 하류층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받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 본 적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적었다고 밝혀, 하류층 아동은 자기 표현을 통한 다양한 언어사용의 기회가 적음을 입증하였다. 케이간과 터킨(Kagan & Tulkin, 1971)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언어발달이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보스톤 - 켐브리지 (Boston - Cambridge) 지역의 중류와 중하류가정에서 속하는 10개월 된 60명의 백인 여아와 그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형태를 연구하였다. 하류계층에 속하는 부모 중의 어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자였으며 비숙련 노동직에 종사하였다. 중류계층의 부모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가장이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훈련된 관찰자가 각 가정을 두시간씩 두번씩 방문하였으며 5초 간격으로 20분씩 행동을 기록하고 10분 휴식하고 다시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

찰하였다. 관찰된 어머니의 행동은 '신체적 접촉하기' '안기' '어루만지기' '얼리기' '이야기 하기' '입맞추기' 등 이었다. 아이의 행동으로는 '늘이하기' '찾기' '흔자 소리내기' '매상을 보고 소리내기' 등 이었다. 나중에 다시 실험실 장면에서 녹음된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록하였다. 또 어머니와 함께 노는 아이들의 행동도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에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류계층의 어머니는 영아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아이의 흥미를 복돋아주었다. 아이의 행동은 사회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지, 중류계층의 영아는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더 조용히 하였으며, 어머니의 이야기가 멈추었을 때 더 활발히 소리를 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아동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종단 연구를 통한 아동 언어 발달 분석이나 언어샘플 수집에 의한 아동의 언어발달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숙희(1987)는 하류층의 어머니들은 전체적인 문제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에게 복종과 수동적인 반응만을 강요하고 유아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지 않는 반면, 중류층의 어머니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고 유아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며 정적인 언어강화를 많이 준다고 보았다.

조문현(1987)은 중상류층 아동은 노동계층의 아동에 비해 총 단어수와 문장수, 접속사의 사용, 형용사, 부사 등의 사용빈도에서 양적으로 더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교한 내용과 제한된 어법으로 요약될 수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내용면에서 글의 추상화 정도와 일반화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앞의 Bernstein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 색과 도형을 이용한 아동용 언어검사 (Token Test for Children)

색과 도형을 이용한 아동용 언어검사 (Token Test for Children)는 3세 - 12세 아동의 언어 이해력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1962년 Derenzi와 Vignolo에 의해 실어증 어른들의 수용 언어 측정도구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들이 처음 소개한 Token Test는, 형태와 색깔이 다른 물체를 실험자의 구두 언어 지시에 따라 실험 대상자가 조작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후 Derenzi와 Vignolo는 처음에 소개한 것보다 나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마침내 Loss와 Derenzi, Vignolo, Noll, Berry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현재와 같은 Token Test가 고안되었다.

Loss는 언어능력의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언어 검사 도구로서 적합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 능력이 아닌 언어표집에 초점을 둘 것이며, 둘째, 애매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표현을 나타내는 어휘의 수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셋째, 확산된 기억력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단어들이 표집되어야 하며, 넷째,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용된 언어단어들이 표집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맞게 고안된 Token Test는, 언어가 손상된 어른의 언어수준을 알아보는데 유효한 검사도구로 활용되게 되었다 (Loss & Golden, 1975).

처음에 언어가 손상된 어른의 언어수준을 알아보는 검사도구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던 Token Test는 어린이들의 언어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Disimoni, 1971). 이와 같이 처음에 실어증 어른의 검사도구로서 개발된 Token Test는,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 검사 도구로서의 고유성과 함께, 실험시의 단순성,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된 적

웅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어른 모두에게 유효한 언어 검사 도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Token Test for Children'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ken Test for Children'는 색깔과 크기와 형태가 다른 20개의 Token과 5단계로 나누어진 61항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Token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흰색의 5가지 색깔이며, 형태와 크기는 지름 2.5cm, 높이 0.9cm의 각각의 색깔 동그라미 5개 등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색과 도형을 이용한 언어 검사의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한 표집대상의 표집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Disimoni는 영어가 모국어인 3세에서 12.5세의 미국아동 1304명을 표집하여 0.5세 단위로 나누어 아동용 Token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 위치를 사용하여 상류 계층 10%, 중류 계층 68%, 하류 계층 22%로 나누어, 남자 48%, 여자 52%로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은 부모나 선생으로부터 수용언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아동들이었으며, 몇몇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부모나 실험자로부터 정상아동이라고 인정된 아동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 5~6세 집단을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대상 아동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5~6세 그룹에서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우세한 점수를 얻었고, 7세 이후부터는 남녀의 우세가 서로 교차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른 아동들의 언어 발달 상황을 밝히지 못하였다. Disimoni의 연구 이후, 'Token Test for Children'이 수용언어의 능력 측정을 위한 유효한 도구로 인정되었으나, 수량적 평가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단지 질적인 차원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아동들의 결과를 비교평가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이와 함께 색과 도형을 이

용한 아동용 언어검사 결과의 인지발달적 측면에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usiller 와 Loss는 'Token Test for Children'의 점수와 Illinois Test of Psycholinguistic Abilities (ITPA)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r=.71$ 의 높은 상관관계를 얻었다(Loss, 1971). Loss와 Golden은 학령 전 아동의 Peabody 그림 어휘 검사 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r=.72$ 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Loss는 Cartwright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Northwestern Syntax Screening Test(NSST) 점수와 Token Test에 의한 점수를 비교하여  $r=.63$ 의 상관관계를 얻기도 하였다. Robb와 Loss는 읽기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 아동 언어 능력 검사와의 Token Test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Disimoni, 1971).

우리나라에서 Token Test를 사용하여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환(1986)이 Disimoni의 'Token Test for Children'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정신지체아의 언어 이해 검사'로서 시도해 본 것을 들 수 있겠다(김영환, 1991). 그는 Token 사용에 있어 기존의 'Token Test for Children'에 없는 검정색 Token을 사용하고 노란색 Token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Token을 색판이라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항 구성에 있어 기존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를 뺀 4단계 만으로 구성하고, 4단계의 문항도 각 단계마다 5개 항목으로 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oken Test의 점수와 한국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ITPA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r=.737$ 이라고 보고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Token Test를 우리나라 아동에게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김 영환의 연구는 문항의 수가 너무 적고 특히 아동의 언어 발달 중 빨리 발달되는 공간개념이 나오는 문항이 없어 정신지체 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 검사 도구로서 사용하기엔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모두 61문항의 5단계의 난이도로 나누어진 검사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국내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수준에 있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같은 연령대에서 특정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이유로는 특정 연령에 있는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개발되거나 활용되지 못했기에 특정 연령 수준에 있는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연령에 속하는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표준화하려는 일차적 목표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 그리고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정 언어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정상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능력 수준을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언어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아동의 언어능력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가설의 설정

가설1 : 남,녀 성별 간의 언어발달 수준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세할 것이다.

가설2 : 중상류층 아동과 하류층 아동간의 언어 발달 수준에서 중상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에 비해 우세할 것이다.

가설3 : 중상류층에 비해 하류층에서 남녀 성별 간의 언어발달 수준의 차이가 클 것이다.

## 연구방법과 절차

###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남여 아동 각 25명씩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연령 기준에 따라 나누어 총 20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학령 전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므로, 부모가 중상류층에 속하는 아동과 하류층에 속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무선 표집하였다. 특히, 표집 연령에 따른 아동의 언어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집대상 아동의 나이를 0.5세 단위로 나누어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중상류층 아동과 하류층 아동으로 분류한 근거로는 홍두승의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직업군'에 따른 분류와(김신일, 1992) 1991년 통계청의 '한국 도시가구의 월 평균소득'(통계청, 1992)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 근거하여 중상류층 아동으로 부모의 직업이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직과 일반회사의 사무직 직원 그리고 자영 상인 등으로 표집하여, 서울 특별시 내의 중상류층 이상의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서울의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9개 유치원에서 나누어 선정하였다. 하류층 아동으로는 부모의 직업이 단순 노무자, 가정부, 청소원등 근로 계급이며 월 수입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1년 한국 도시가구의 월 평균소득 1,158,608원에 훨씬 못 미치는 65만원으로 등록되어 영세민을 위한 시설에 맡겨져 있는 서울 특별시내의 강북과 강남 지역의 10개 어린이집 아동을 각각 선정하였다.

### 검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앞서 소개한 Disimoni에 의해 제작된 'The Token Test for

Children'을 한국 종합 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검사 도구의 실시 가능성 여부 및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무선표집으로 본 연구의 대상나이인 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 장애인 복지관에서 번역한 문항을 가지고 실시하였더니 “원(circle)”보다는 “동그라미”라는 단어에 아동이 익숙하였다. 둘째, 5단계 문항에 있어 일부 문항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 실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려 아동이 지루해 하였으며 도중에 탈락하는 아동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검사반응율의 향상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포함한 전체 검사문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검사 문항의 신뢰도(Cronbach)는  $r=.94$ 로 나타났다.

#### 검사 절차

본 연구의 검사는 약 3달에 걸쳐 예비검사와 본 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아동과의 rapport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명령이 끝나고 나서 지시에 반응할 것과 더불어 검사자는 각 단계별에 따른 Token의 배치 방법과 각각의 문항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아동에게 주었다. 검사자 한 사람이 한 아동을 상대로 마주 앉아 시간제한 없이 문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실시하였다. 혹 시작 단계나 특정단계에서 계속 틀린 반응을 보이면, 그 아동은 검사를 중지하였다. 채점은 맞게 반응하면 (+) 틀리게 반응하면 (-)로 하여, (+)에 1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1 단계에서 4단계까지 각각 10점 만점씩 40점, 5단계 21점 등 총 61점이 만점이 되게 하였다. 부록 2에서는 각 단계에서 제시한 색과 도형들이 검사

자와 피험자 사이에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요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결과 및 논의

각 검사 수행에서 얻어진 점수는 피험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검사 문항이 다섯 단계에 속하는 6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피험자들의 수행 결과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1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이도로 구분된 5 단계에 따른 차이가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사회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각 피험자들의 언어능력 수준을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계층 세가지 요인으로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1은 각 요인에 따라 구분된 언어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1. 연령, 성별 및 계층에 따른 언어검사의 평균 점수 ( ()는 표준편차)

(소득 직업)	계층	연령수준	
		5세-5세반	5세-6세이하
중상류	남	41.52 ( 9.35)	49.88 (5.91)
	여	43.36 ( 8.18)	51.48 ( 6.69)
하류	남	35.16 (11.01)	42.40 (10.97)
	여	38.84 (10.12)	48.16 ( 9.07)

표 1의 자료처럼 각 아동의 언어검사 수행능력

점수에 대해 연령(5세-5세반, 5세반-6세 이하) X 성별(남, 여) X 사회경제적 계층(중상류층, 하류층)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어검사 점수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192) = 37.47$ ,  $p < 0.001$ ).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F(1, 192) = 10.09$ ,  $p < 0.05$ )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192) = 12.94$ ,  $p < 0.001$ ).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별, 연령별, 사회 계층별 집단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5.5세 집단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t(98) = 2.08$ ,  $p < .05$ ). 5세반과 6세 미만 집단에서도 여아는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언어능력을 보였다( $t(98) = 2.09$ ,  $p < 0.05$ ). 표 1은 각 연령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수행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상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0~5.5세 아동집단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 $t(98) = 2.33$ ,  $p < 0.05$ ),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t(98) = 3.15$ ,  $p < 0.01$ ). 평균의 차이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계층간의 차이는 앞서 밝힌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차이가 성별과 연령집단 모두에 걸쳐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5세-5세반 집단에서는 중상류층과 하류층 모두에서 남, 여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 중상류층에서의 남, 여 차이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하류층에서는 유의미한 남녀차이를 보여주었다( $t(48) = 2.02$ ,  $p < .05$ ). 이 결과는 남녀성별에 따른 언

어발달 차이는 중상류층에서 보다 하류층에서 차이가 크다는 주장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 하류층에서의 남, 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하류층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남, 여의 차이를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예, Fisher)의 견해를 연령집단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령전 아동의 언어능력의 차이는 각 집단의 점수분포를 세분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각 아동의 언어검사 점수를 집단의 평균에서 집단의 표준화 표준편차(S.D.) 1 이하에 속하는 빈도를 비교하였다. 표2는 각 연령과 성별, 사회 경제적 집단의 구분에서 표준편차 1 이하 아동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서 "Token Test For Children"의 표준차 작업에서 사용한 원점수를 평균 500, 표준편차 5인 표준점수로 환산하였다.

성별 변인에 비교 결과는 5-5세반, 5세반-6세 이하 집단 모두 그 빈도가 남아가 높았으며, 5세-5세반 집단에서도 중상류층과 하류층의 비교적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5세반-6세 이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2. 각 연령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의 점수를 보인 아동의 비율

(소득·직업)	성별	연령수준	
		5세-5세반	5세-6세이하
중상류	남	20%	8%
	여	8%	8%
하류	남	40%	60%
	여	20%	24%

이들 중 단순언어 발달 지체라고 정의되지는

않으나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학습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S.D.이하, -2S.D. 이상의 수준인 아동들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5세반 집단 중 중상류층은 단지 10%에 불과하나 하류층은 20%정도로 약 1 : 2의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중상류층에서는 8%, 하류층에서는 34%의 아동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본연구 대상의 약 20% 정도의 아동이 집단의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의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사회계층 집단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집단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에 속하는 아동의 75% 정도가 하류층에 속해 있는 사실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학령전에 이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중 단순언어발달지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2SD이하 비율은 5세-5세반 집단에서 남녀 각각 16%, 12% 그리고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 남녀 각각 8%, 8%로 나타나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계층별로는 5세-5세반 집단에서 중상류 4%, 하류 20%, 5세반-6세이하 집단에서 하류에서만 16%로 나타나 계층간에 따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차이에 따라 학령전 아동의 언어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현재 이 색과 도형을 이용한 언어검사가 5세와 6세에 속하는 200명의 아동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결과는 이 검사를 통해 나타난 특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5세와 6세 연령에 속하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규준표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 3

은 검사점수를 기준으로 아동이 전체 100분위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에 국한하였으나 가능하다면 전국적인 표본에 의한 많은수와 다양한 연령(최소한 3세에서 7세)의 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기 전의 아동의 언어능력을 간단히 검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학교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는데 이 검사는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색과 도형을 이용한 언어검사도구는 아동의 언어적 지시의 이해 능력을 충점적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단어를 활용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조어능력이나 문장 사용능력을 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검사를 통한 결과를 특정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언어능력의 차이가 모든 범주의 언어능력에 일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학령전 아동의 언어 이해 능력이 평균에서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아동을 교육하는 기관과 가정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언어사용과 발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통한 학령전 아동교육의 수립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문.

- 김신일(1992).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28.
- 김영환(1991). 정신지체아의 언어. 서울: 도서  
출판특수교육, 167-170.
- 박경숙·윤점통 편저(1989). 특수교육의 이론  
과 실제. 서울: 교육사.
- 박승운(1974). 언어습득에서의 규칙과 연습.  
울산공대연구논문집, 제5권, 87.
- 박인권(1992). 언어지도법. 서울: 韓書 출판사.  
84-87.
-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한국 언어 병리학회  
(1990). 언어발달 지체아동의 치료교육.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1987). 장애 아동의 진  
단과 특수교육적 대책. 제10차 전문요원  
교육 교재.
- 신숙희(1987). 어머니의 언어 형태와 유아의  
언어: 사고능력 및 창의성과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1991). 교육심리학 서설. 서울: 교육과  
학사.
- 이승환(1992). 언어치료사 기초과정. 서울: 대  
한적십자사 서울지사. 34-37.
- 이정섭·강문희(1990). 유아의 언어교육. 서  
울: 창지사. 16-105.
- 이정섭(1984). 유아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148.
- 이정섭·권경안·정인실(1980). 한국 아동의  
어록발달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동빈(1987). 언어습득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趙明翰(1985). 언어 심리학. 서울: 민음사.
- 조문현(1987). 학급에서의 언어적 표현과 아동  
지위의 분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 주영희(1984).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서울: 교  
문사.
- 최경숙(1985). 아동 심리학. 서울: 민음사.
-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85.
- Riley A.H. (1984). *Evaluation Acquired Skills  
in Communication*. Bellevue: Communica-  
tion Skills Builders, 776-777.
- Bangs T.E. (1990). *The Bangs Receptive Vo-  
cabulary Checklist for Preschool and  
Kincdergarten Children*. Bellevue: Communi-  
cation Skill Builders.
- Bloom L. & Lahey M. (1979). *Language De-  
velopment and Language Disorders*. New  
York: J.Wiley and Sons.
- Disimoni Frank. (1978). *The Token Test for  
Children*. Allen : DLM, 1-28.
- Dyson A.H. (1981). *Oral Language: The  
Rooting System for Learning to Write.  
Language Arts. Vol. 58*
- Flowers C. (1971). *A Method of Correcting  
Part V. Token Test Scores for Age of  
Speech Defective Children in the Public  
Schools. Journal of Pennsylvania Speech  
and Hearing Association.*
- Guang-Lea Lee. (1993). Relationship be-  
tween home Literacy Enviornment and  
Four Year Old Childrens Literacy  
Readiness. Doctoral Thesis. Univ. of Min-  
nesota. Minneapolis, 14-26.
- Halliday M.A.K.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 (1975). The Functional  
Basis of Language. *Languages*, 35, 54-

73.

- Hoffmann P.R. & Norris. A.J. (1989). On the Nature of Phonological Development: Evidence from Normal Children's Spelling Erro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2*, 787-794.
- Holaway D. (1979). *The Foundations of Literacy*. New York: Ashton Scholastic.
- Kagan, J. & Tulkin, S. R. (1971). Social Class differencer in child rearing the tirst year. In H. R. Schaffer(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 Landon Academice Press*.
- Kelly C.A. & Dale P.S. (1989). Cognitive Skill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Multiword Utteranc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2*, Sep.
- Kittins A. (1992).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Lass N. & Goledn S. (1975). A Correlational Study of Children's Performance on Three Test for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Journal of Auditory Research*, Dec, 193-198
- Marc E. Fey. (1985).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eren*. Boston College Hill Press Inc., 41.
- Newcomer P.L. & Hammill D.D. (1988). *Test of Language Development-2 Primary*. Bellevue : Communication Skills Builders.
- Piaget Jean. 손명자 이순형 공역. (1985). 0-5  
동의 언어와 사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Robert E. & Owen Jr. (1985). *Language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Geneseo :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Science.
- Robinson P. (1992). 손 칙수 역. *교육 사회학*의 전망. 서울: 양서원, 107-110.
- Scarborough H.S. (1990).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Early Language Dela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3*, March, 70-73.
- Simon C.S. (1986). *Evalua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Belleuve : Communication Skill Builders.
- Thomas R.M. (1987). 백운학 역. 아동 발달의 제 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Zarchman L., Jorgensen C., Huisin gh R.&, Barrett M. (1987) *Test of Problem Solving*. East Moline : Linguisystems Inc.
- Zimmeman I.L. & Steiner V.G. (1979). *Preschol Language Screening Test*. Columbus : A Bell and Howell Company.

## **Sex,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Its Effects on Language Development of Pre-school Age Children: Comparison of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Using Shapes and Colors**

Kyung-Hea Shin and Sang-Min Hwang

Department of Education, Sejong University

A Child's language comprehension or performance capability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as an indirect indicator of his or her intellectual ability. The language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with his early experiences from the environment. His language competence and performance reflect the degree and quality of his social interactions and emotional experiences. This study sees the language ability as a basic skill in personal interaction and learning process, and focuses on the differences of the skill by the parents socio-economic level.

The hypotheses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emale may be superior to male in language development level in terms of sex.

Second, middle-upper classes children may be superior to lower class children in terms of language development.

Third, compare to the middle-upper classes, lower class may show more language development level difference in terms of sex. The samples, one hundred children of five and six years of age, were taken from ten kindergartens and nine daycare centers in the Kangnam and Kangbuk area of Seoul, equally distributed by sex and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e result shows that their language abilities are different by sex, age, and socio-economic group. The difference gap is bigger in the older age groups. Children from the middle-upper class families show significantly higher abilities than those from the low class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age or sex. However, the interactive effects of age and sex with socio-economic factors are no present.

# 부록 1: 색과 도형을 이용한 아동용 언어검사(Token test for Children)의 문항

## 단계 1.

1. 빨간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2. 초록색 네모를 짚어라.
3.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4. 노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5.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6.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7. 노란색 네모를 짚어라.
8. 하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9. 파란색 네모를 짚어라.
10. 하얀색 네모를 짚어라.

## 단계 2.

1.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2. 큰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3. 큰 노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4. 큰 파란색 네모를 짚어라.
5. 작은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6. 큰 빨간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7. 큰 하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8.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9. 작은 초록색 네모를 짚어라.
10. 큰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 단계 3.

1. 노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2. 초록색 네모와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3. 파란색 네모와 노란색 네모를 짚어라.
4. 하얀색 네모와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5. 하얀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6. 파란색 네모와 하얀색 네모를 짚어라.
7. 파란색 네모와 하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8. 초록색 네모와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9.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네모를 짚어라.
10. 빨간색 네모와 하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 단계 4.

1.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와 큰 초록색 네모를 짚어라.
2. 작은 파란색 네모와 작은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3. 큰 하얀색 네모와 큰 빨간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4. 큰 파란색 네모와 큰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5. 작은 파란색 네모와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6.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와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7. 큰 파란색 네모와 큰 초록색 네모를 짚어라.
8. 큰 파란색 동그라미와 큰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9. 작은 빨간색 네모와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10. 작은 하얀색 네모와 큰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 단계 5.

1. 초록색 네모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2. 노란색 동그라미 뒤에 하얀색 네모를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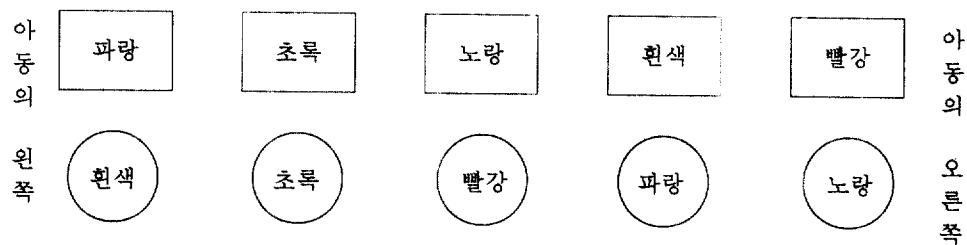
3. 빨간색 네모와 함께 파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4. 파란색 동그라미를 가지고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5.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6. 파란색 동그라미나 또는 빨간색 네모를 짚어들어라.
7. 초록색 네모를 노란색 네모로부터 멀리 떨어 뜨려놓아라.
8. 파란색 네모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9. 만약 여기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으면 빨간색 네모를 짚어들어라.
10. 노란색이 아닌 네모들을 모두 짚어 들어라.
11. 내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짚을 때 너는 하얀색 네모를 잡아라.
12. 초록색 네모를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놓아라.
13. 네모들은 천천히 짚고 동그라미들은 빨리 짚어라.
14. 빨간색 동그라미를 노란색 네모와 초록색 네모 사이에 놓아라.
15. 초록색 말고 동그라미들을 모두 짚어라.
16. 빨간색 동그라미를 짚어들어라. -아니- 하얀색 네모를 짚어들어라.
17. 하얀색 네모 대신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잡아라.
18. 노란색 동그라미와 함께 파란색 동그라미를 잡아라.
19. 초록색 네모를 짚어 든 후에 하얀색 동그라미를 짚어라.
20. 하얀색 네모 바로 아래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21.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지기 전에 빨간색 네모를 짚어라.

## 부록 2: 각 검사단계에서의 시행 방법과 절차

검사 실시 전 각 문항에 따라 아동에게 준 지침의 내용과 Token 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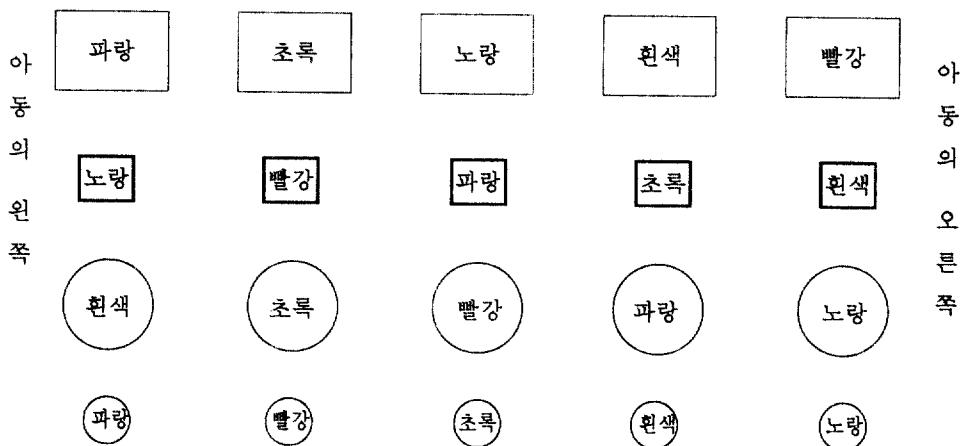
### 가. 단계 1

아래와 같이 Token을 배치하고 아동에게 검사자가 지시하는 한개의 특정한 Token을 짚도록 요구한다.



### 나. 단계 2

아래와 같이 토큰을 배치하고 아동에게 검사자가 지시하는 한개의 특정한 Token을 짚도록 요구한다.



### 다. 단계 3

단계 1과 같이 Token을 배치하고 두 개의 Token을 짚도록 요구하는데, 이 때에 먼저 지시한 Token을 짚고 다음에 지시한 Token을 짚었을 때 점수를 준다. 이때에 두 손의 각각 하나의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한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짚도록 요구한다.

### 라. 단계 4

단계 2와 같이 Token을 배치하고 아동에게 준 지침은 위의 단계 3과 같다.

#### 마. 단계 5

단계 1과 같이 Token을 배치하고 각각의 문항에 따른 지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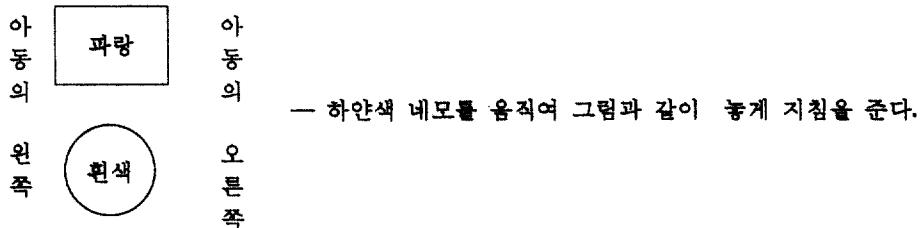
문항 1 : 초록색 네모 위에 뺨강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뺨강색 동그라미를 초록색 네모 위에 그림과 같이 옮겨 놓게 지침을 준다.

뺨강

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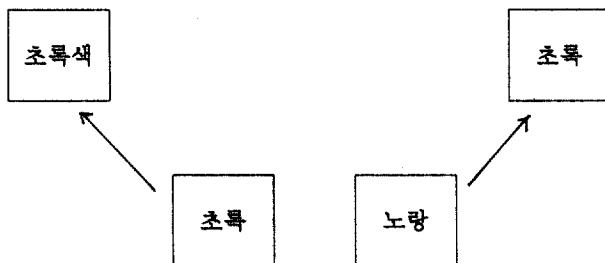
문항 2 : 노랑색 동그라미 뒤에 하얀색 네모를 놓아라.



문항 4 : 파랑색 동그라미로 뺨간색 네모를 짚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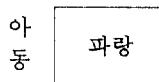
강색 동그라미를 가지고 파랑색 동그라미를 짚도록 지침을 준다.

문항 7 : 초록색 네모를 노랑색 네모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라.



--초록색을 움직여 기존의 배열 형태의 노랑색 네모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지침을 준다.

문항 8 : 파랑색 네모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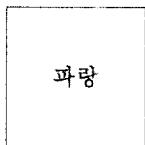
아  
동  
의

원  
쪽

— 하얀색 동그라미를 움직여 파랑색 네모 앞에 놓도록 지침을 준다.

오  
른  
쪽

문항 12 : 초록색 네모를 빨강색 동그라미 옆에 놓아라.



— 초록색 네모를 빨강색 동그라미 양 옆 어느쪽에 놓아도 좋다고 지침을 준다.

문항 13 : 네모들은 천천히 짚고 동그라미들은 빨리 짚어라.

— 네모 하나 하나를 천천히 짚도록 하고 속도를 내어 각 동그라미를 차례대로 짚도록 지침을 준다.

문항 16 : 빨강색 동그라미를 집어들어라 -아니- 하얀색 네모를 집어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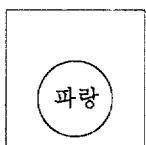
— 빨강색 동그라미를 짚다가 하얀색 네모를 집어들거나, 하얀색 네모를 곧바로 집어들면 옳다는 지침을 준다.

문항 17 : 하얀색 네모 대신에 노랑색 동그라미를 잡아라.

— 하얀색 네모를 짚다가 노랑색 동그라미를 잡거나, 곧바로 노랑색 동그라미를 잡도록 지침을 준다.

문항 20 : 하얀색 네모 바로 아래에 파랑색 동그라미를 놓아라.

하얀색



— 파랑색 동그라미를 움직여 하얀색 네모 아래에 놓거나, 하얀색 네모를 움직여 파랑색 동그라미 위에 놓도록 지침을 준다.

**부록 3: 5세-5세반 그리고 5세반-6세 미만 학령전 아동의 검사점수에 의한 배분위 규준**

배분위	5-5½	5½-6
100	60	61
99	58	—
98	56	—
97	55	—
96	54	—
95	—	60
94	—	—
93	53	—
92	—	59
91	52	—
90	—	—
89	51	—
88	—	57
87	50	—
86	—	—
85	—	56
84	—	—
83	—	—
82	—	—
81	—	55
80	49	—
79	—	—
78	48	—
77	—	—
76	—	—
75	—	54
74	47	—
73	—	—
72	—	—
71	46	—
70	—	53
69	—	—
68	—	—
67	—	—
66	—	—
65	45	—
64	44	—
63	—	—
62	—	52
61	—	—
60	—	—
59	43	—
58	—	51
57	—	—
56	—	—

백분위	5 - 5½	5½ - 6
55	—	—
54	—	—
53	—	—
52	42	50
51	—	—
50	—	49
49	41	—
48	—	—
47	40	—
46	—	—
45	—	48
44	39	—
43	—	47
42	—	—
41	38	—
40	—	—
39	—	—
38	37	—
37	—	—
36	—	—
35	—	—
34	—	46
33	36	—
32	—	45
31	35	—
30	—	—
29	—	43
28	34	—
27	—	42
26	—	—
25	—	—
24	33	—
23	—	41
22	32	40
21	—	—
20	31	—
19	29	39
18	—	—
17	28	38
16	27	37
15	—	36
14	26	—
13	24	—
12	23	35
11	20	34
10	18	33
9	—	—
8	—	—
7	17	32
6	16	31
5	—	30
4	13	29
3	—	28
2	9	26
1	0	23